

한·일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에 관한 연구

-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between Space' of the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in Korea and Japan

- Focused on Spatial Characteristics and Sociocultural Roles -

박형진* / Park, Hyung-Jin

박세정** / Park, Se-Jung

김문덕*** / Kim, Moon-Du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in Korea and Japan as analyz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sociocultural roles of the 'in-between space' shown in their traditional dwelling space. Although they share culture area, it is meaningful to clarify the identity of both countries with many differences as the point of localization in globalization and the point of presenting the current and future directions of residential culture in both countries.

Records and field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he sociocultural role focused on Ma-dang and Dae-chung in case of the 'in-between space' in Korean traditional dwellings and Inner housing, Doma, and Engawa in Japan.

According to these finding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in common between Korea and Japan are open, half-open, separation, mitigation, integration, variation, continuation, hierarchy, mediation, and expansion. The 'in-between space', built by the separate Chae and Kan, of Korean traditional dwellings shows the separation by closed walls and the exclusive use by the fixed walls. In case of Japan, the integrated in-between space built by the separation of Kan shows open and connective tendencies and the variableness of walls has the tendency making ambiguous space with spatial softness.

The sociocultural role of the 'in-between space' in Korean traditional dwelling space functions as the mitigation between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house as well as the male and female. Because the conception for protecting the private life is too weak, the sociocultural role of the 'in-between space' in Japanese traditional dwelling space seldom forms the space for an individual or the specific person among family. The space to welcome a guest functions as the mitigation between residents and outsiders as it is located in the inside of the private dwelling space.

키워드 : 한·일 전통 주거공간, 정체성, 중간영역, 공간적 특성, 사회문화적 역할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일본은 문자, 종교, 사상, 정치, 사회제도 등의 많은 인문적 환경을 공유하는 반면에 지리, 지형, 기후 등의 자연적 환경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유사한 인문적 환경과 상이한 정주환경을 반영하여 발전한 양국의 전통주거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이면서도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건축은 목조가구식으로서 주재료와 구조가 유사하고 신을 벗고 실내에 진입하며, 좌식 생활을 하는 등 주거문화에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에 공간의 배치와 구성, 실내·외의 의장, 건축의 사회문화적 관계 면에서 많은 상이점을 보인다.

일본의 건축비평가 호사카 요우이치로우(保坂陽一郎)는 주거공간 내외부의 경계는 다양한 건축요소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들은 공간에 애매한 경계를 만든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계는 사용자의 습관, 풍속, 종교 등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구분된다고 하였다.¹⁾ 결국 주거 내부의 영역은 다양한 건축요소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졸업

*** 회장,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교수, 건축학박사

또한 네덜란드의 구조주의 건축가 알도 반 야크(Aldo Van Eyck)는 '중간영역(the In-between)'의 개념으로 경계공간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을 위한 공간과 시간의 개념 중에서 '중간영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중간영역' 즉, 경계공간은 인간을 참여시키기 위한 장소라고 하였다.²⁾ 그는 건축요소로서의 중간영역은 시각적, 물리적인 차폐의 조절에 의해 통행, 채광, 통풍이 가능토록 하는 실용적 기능을 갖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외의 참다운 구별을 성취할 수 없으며, 인간의 삶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이나 외부공간과 접촉하는 방식 등 사회문화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거공간에 나타나는 '중간영역'에는 영역의 공간적 특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중간영역'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주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이지만, 안과 밖의 개념이 비교적 분명한 서양건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념이다. 그러므로 양국의 전통 주거공간에서 '중간영역'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정체성 확립의 측면과 지역성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삶의 행위를 담고 있으며, 공간과 공간을 연결, 매개, 완충, 여과시키는 등의 공간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제3의 영역을 '중간영역'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중간영역'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³⁾, 한·일 양국의 공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임의로 용어를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 주거공간에 나타나는 '중간영역'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역할을 분석하여 양국의 전통 주거공간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호사카 요우이치로우(保坂陽一郎), 이진민 역, 경계의 형태 그 건축적 구조, 한국산업훈련연구소, 1999, pp.116~117

2) Francis Strauven, Aldo Van Eyck; The Shape of Relativity, Architectura & Natura, 1998. 윤현정, 한국 전통 주거공간에 있어서 경계공간의 개념 및 특성, 세종대석론, 2002. p.17에서 재인용.

3) 이배화는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나는 공간구성의 유형학적 분석에서 '사잇공간'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 내부공간도 혹은 외부공간도 아닌 한국 전통건축의 "여허공간(餘虛空間)"을 서구건축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꼽았다. 이것은 내부와 외부로 만나게 하는 독립된 단위공간으로 영역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마당, 토방, 툇마루, 대청마루, 누마루, 정자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 단위공간을 공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중간영역'이라고 하였으며, 공간적으로 매우 역동적이며 다양하게 적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배화,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구성의 유형학적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2. p.190. /대립·역동·조화의 이론과 한국전통 건축에 있어서 공간 구성의 실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4. p.69

구로카와 키쇼(黒川 紀章)는 일본 전통공간의 특성을 '중간체 수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외부와 내부의 개(個)와 전체를 역전시키면서 그림자나 공(空)을 만들어가는 수법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일본 전통공간으로는 툇마루, 추녀 밑, 울타리(生垣), 골목, 대문이나 뜰 등을 들었다. 특히 중간체인 '가장자리(緣)' 공간은 내부와 외부로 직접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일본인의 경계 의식이 잘 드러나는 공간 개념이며, 내부와 외부의 연계방식으로써 두 공간을 공존시키고 연결하며 융합하는 공간개념이라고 하였다. 구로카와 키쇼(黒川 紀章),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1986. p.145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선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전통 주거공간에 나타나는 '중간영역'의 특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전통주거의 '중간영역'은 안채와 사랑채에 부속된 마당과 대청으로 한정하였다.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누마루, 툇마루, 쪽마루에 비하여 마당과 대청은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⁴⁾ 공간적 특성이나 기능 면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 전통주거는 평면 전체에 공간적·기능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간영역'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평면 전체를 의미하는 '주호(住戶) 내부'와 함께 도마(土間), 엔가와(緣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의 경계 개념으로서의 '중간영역'은 공간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 주거공간에 나타나는 '중간영역'을 매개체로서의 공간적 특성과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 외부인과의 접촉 방식 등의 사회문화적 역할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전통주거는 별도의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전통주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 문헌조사와 대상가옥의 평면분석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2. 한국 전통주거에서 '중간영역'의 특성

2.1. 한국 전통주거에서 '중간영역'

기존의 한국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를 주거의 배치·평면구성과 공간의 연계방식의 특성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1>⁶⁾

<표 1> 한국 전통주거의 배치 및 평면구성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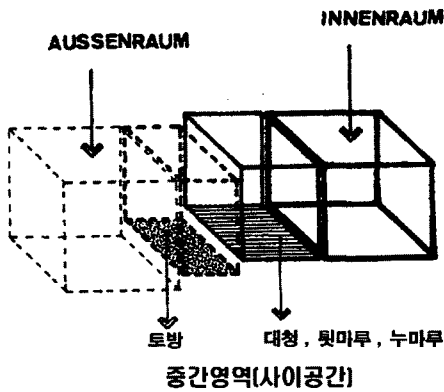
	연구자	특성
배치	주남철, 윤장섭	비대칭적인 균형
	이배화, 주남철	채와 방의 분화
	윤장섭, 주남철, 류경수 주남철, 박영순 외 김중현, 주남철	남·녀 공간의 구별 상·하 공간의 구별 공·사 공간의 구별
평면구성의	주남철, 이배화 이배화	공간의 연속성, 공간의 통합성
	이배화, 류경수	매개공간의 존재
특성	주남철, 박영순 외, 류경수	공간정서의 변화와 통일성
	주남철	적극적·소극적 공간의 교차, 반복
	윤장섭, 주남철	외적으로는 폐쇄적, 내적으로는 개방적
	주남철, 박영순 외, 류경수	겨울공간과 여름공간으로 나누어짐
	박영순 외	'칸'이 건축 구성의 기본 모듈임
	주남철, 박영순 외, 류경수	자연과 융합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임

4) 김란기, 마루의 공간적 의미, 건축과 환경, 1987.1, p.32

5) 호사카 요우이치로우(保坂陽一郎), 이진민 역, 위의 책, pp.116~117

공간연계방식의 특성	주남철	외적 폐쇄성, 내적 개방성의 성격
	주남철	공간과 공간의 상호 침투성 자연과의 융합 안과 밖의 구조의 반복 내부·외부공간의 전이 사이 공간(대청, 툇마루, 누마루, 토방)
	류경수	담장에 의한 구분
	류경수, 박영순 외, 이배화	문(분합문, 미달이문, 여달이문, 미세기문)
	류경수	대청마루는 실과 실의 경계이자 매개공간 사분합문

이배화는 서구 건축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한국 전통주거의 공간적 특성으로서 내부공간도 외부공간도 아닌 ‘중간영역’을 예로 들었다. “서구건축의 아트리움, 아케이드, 로지아, 테라스의 공간형식이 내부와 외부를 상호 만나게 하는 조형적인 요소인데 반하여 한국 전통주거에서의 사이공간은 독립된 단위공간으로 영역적 성격을 가지며 여기서 매우 다양한 생활기능을 수행한다.” “한국건축은 외부공간에 대하여 차단된 내부공간이 아니라 자연에 종속적으로 연속되고 개방되어 더불어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⁷⁾라고 하였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비워진 공간으로서 자연으로의 개방을 의미하며 내, 외부를 매개하는 사이공간을 뜻하는 것이다.<그림 1>



<그림 1> 중간영역으로서의 사이공간
(이배화, 위의 논문, 1998.2, p.191에서 인용)

또한 채(棟)를 분리하고 간(間)으로 구성⁸⁾하는 한국 전통주거의 공간구성방식과 중간영역의 생성을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공간을 구성하는 각 단위는 기본적인 속성과 의미에 충실하다. 즉, 방은 방으로서 마당은 마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속성과 의미에 충실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을 지닌 각 공간은 서로 관계 맺음으로써 하나의 단위공간을 이루게 된다. 공간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연결, 매개, 완충, 여과시켜주는 사이공간

의 역할을 많이 필요로 한다.”⁹⁾ 결국 이러한 사이 공간들은 각 단위공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거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그림 2>



<그림 2> 단위공간과 중간영역(사이공간)의 관계

김란기는 ‘매개공간’과 ‘회색공간’을 공간과 공간의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내지는 의사소통, 혹은 단지 소통을 의미하며, 매개 혹은 회색은 중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한국 전통주거 공간에서 매개공간이란 마당, 대청 등으로 파악되며, 회색공간은 누마루, 툇마루 등이라고 하였다.¹⁰⁾ 또한 이진길은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이공간은 매체공간, 회색공간, 매개공간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공간으로 마당, 대청, 누마루, 툇마루 등을 들고 있다. 특히, 한국 전통건축에서 보이는 ‘사이공간성’은 주변 단위 공간과의 관계, 혹은 상황에 따라 연결, 매개, 완충, 여과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적 경향성이라고 하였다.¹¹⁾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 전통 주거공간에서 ‘중간영역’은 연속된 공간에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에 따라 공간의 상호침투, 공간의 연속·통합·매개(전이, 사이), 공간의 연결·완충·여과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공간으로 마당, 대청, 토방, 누마루, 툇마루 등을 들 수 있다.

2.2. ‘중간영역’의 특성

(1) 안마당과 사랑마당

채와 간의 분화는 한국 전통주거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상류 주거일수록 채의 분화가 간의 분화에 비해 더 우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¹²⁾ 채의 분화는 필연적으로 채와 채 사이에 ‘중간영역’을 생성하게 되고 일반적인 경우 이는 마당의 생성을 의미한다. 한국 전통주거의 안채와 사랑채의 각 마당은 주거의 두 개의 커다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전통주거의 안마당은 중심을 비워내는 것에 의해 공간을 형성하며 기능적으로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하는 경계구조의 의미뿐만 아니라 완충공간의 역할을 한다.¹³⁾ 안채와 함께 주거의 물리적, 심리적인 구심의 역할을 하며, 외부 사회와 방어, 분리,

6)김연정, 동서양 전통적인 주택 양식의 실내공간 특성 비교분석 연구, 연대석론, 1999. 참조

7)이배화, 위의 논문, 1998.2, pp.190~191 / 위의 논문, 1991.4, pp.69~70

8)‘채와 간의 분화’는 주거건축 뿐만 아니라 궁궐, 향교, 서원 등 모든 한국 전통건축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이며, 중국 북경의 사합원 주택이 채와 채로 분화되는 것과 일본의 주택이 하나의 커다란 채로 건립되어 그 속에서 여러 간으로 분화되는 것의 중간적인 성격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p.8

9)이배화, 위의 논문, 1991.4, p.70

10)김란기, 위의 글, p.32

11)이진길, 한국전통건축의 사이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1호, 2001.1, p.101

12)김란기, 위의 글, p.29

13)노동성·홍대형, 관가정의 건축공간 구성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12호, p.168

차단적인 역할이 크다. 또한 주거 내의 작업공간이며, 모든 통과외례, 지신을 모시고 제례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외부에 대하여 폐쇄적인 안채의 공간은 후기로 갈수록 안마당으로 개방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다.¹⁴⁾

사랑채는 상류주택의 경우 고위층 관료내지는 문중을 대표하는 어른의 일상의 거처이자 정치적, 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사랑채는 가정 내에서 외부와 교류하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사회적(半社會的)¹⁵⁾인 성격을 지닌다. 사랑채의 개방적인 구조는 이러한 사랑채의 사회적 성격과 관계가 깊다. 사랑마당은 집안과 외부의 매개적 역할과 함께 연결시키는 완충적 역할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류주택의 사랑마당은 주거내부에서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 외부세계와의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당의 공간은 대부분 하늘로 열려 있으나, 수평적으로는 인제나 건물과 울타리 혹은 단(段)으로 둘러 싸여 있다. 내부공간의 연장으로서 마당은 채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공간의 세력장을 유지하고 있다.¹⁶⁾ 바깥채, 사랑채, 안채의 영역은 평상시에는 독립된 영역이나, 연결되는 문의 개방에 따라 연속되며, 통합된다. 또한 마당은 건축과 자연을 융합시키며 과정적, 통로공간의 역할과 함께 공간에 유연한 탄력을 부여하며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¹⁷⁾ 따라서 마당은 주공간의 부속공간, 전이공간, 매개 공간이면서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갖추었으나 공간적 특성이나 기능면에서 완전한 내, 외부의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닌 중간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안대청과 사랑대청

한국 전통주거에서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 구조를 마루라고 하는데, 마루는 대개 대청마루(혹은 대청), 쪽마루, 뒷마루, 누마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청마루의 가장 큰 공간적 특성은 내부공간 혹은 외부공간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적어도 한 면은 문이나 벽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존재하더라도 개방성이 높은 분합문으로 구성되어 폐쇄적이기 보다는 개방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완전한 지붕과 바닥을 갖추고 있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거주성이 높은 공간으로 내부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청마루의 공간적 성격은 안방과 건넌방, 혹은 사랑방과 누마루, 채와 마당 사이의 '중간영역'으로서 매개공간의 역할을 담당한다.¹⁸⁾

안대청은 대부분의 경우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평면상의 안채의 중심에 위치한다. 안대청은 제례의식이 행해지는 공간으로 상징성과 권위성을 지닌 신과 인간의 중간영역이며 매우 신

성한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제례의식 공간으로서의 상징성과 신성함은 고대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로 대표되기도 한다. 이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안대청이 주거의 중심적, 상징적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안대청의 독립된 공간적 성격은 안채의 안방, 안대청, 건넌방이 각기 독자적인 영역성을 확보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게 한다. 또한 안대청은 내,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주공간인 안방과 며느리의 주공간인 건넌방을 연결하는 동시에 완충공간의 역할을 한다.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관계를 완화시키는 물리적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¹⁹⁾ 또한 안마당과 뒷마당의 사이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외부공간을 앞뒤로 마주대하며 내, 외부 공간의 통합을 이루고 있다.²⁰⁾

사랑채는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의해서 바깥주인의 위엄과 권위, 존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권위공간으로 여성에게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사랑대청은 사랑채 영역에서 가장 높은 위계성을 지닌 중심공간으로서 바깥주인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집주인의 거처로서 접객, 교화, 학습의 장소로 이용되며 안대청에 비해 공간적으로 개방된 장소로서 자연을 음미하면서 자연으로 공간을 확대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사랑채의 누마루는 이러한 권위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며 자연과의 친화를 주택 내부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형식으로 주거공간과 자연의 중간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3. 일본 전통주거에서 '중간영역'의 특성

3.1. 일본 전통공간에서 '중간영역'

일본 전통적인 건축 공간은 개방성이 풍부하고 그 한정도가 희박하여 하나의 퍼져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주거공간에 있어서도 외부 자연과 확연히 구분된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애매모호한 경계를 가진 내부와 외부가 존재하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마(間)는 일본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이소자키 아라타(磯崎 新)는 마(間)의 개념을 통해 일본적인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9가지로 마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는 주거공간의 구성단위이고 이동의 순간을 감지하는 호흡이며 그 안에서 살아있는 장소로 소멸로의 예감이 충만한 이동과정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²²⁾ 또한 미야카와 에이

14)김중현·주남철,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2호, 1996.2, p.88

15)김중현·주남철, 위의 논문, p.88

16)이배화, 위의 논문, 1998.2, p.189

17)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98, p.53

18)김란기, 위의 글, p.32

19)김미나, 조선시대 주거공간의 경계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론, 1997, pp.80~82

20)이배화, 위의 논문, 1998. 2, p.189

21)차명렬, 상류주택 누마루의 권위성과 상징성, 건축과 환경, 1987.1, p.36
22)197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일본문화의 정체성을 규정한<間- 日本의 時空間>에 발표된 내용으로 당시 유럽 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소자키 아라타(磯崎 新), 建築における 日本的なもの, 新潮社,

지(宮川 映二)는 ‘마’란 언어적으로는 ‘사이’ ‘틈’ 을 의미하는 공간의 기본단위로 모야(母屋)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차양이 생기고 다시 그 바깥쪽에 마루가 생기듯이 원심적으로 구성되며, 이는 생활의 중요한 요점을 팔방으로 자연 속에 펼쳐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면과 평행한 방향에 한정도가 낮다는 것, 즉 건물의 주위의 안과 밖을 거의 구별 없이 결부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일본공간의 특징이다.”²³⁾ 라고 하였다. 즉, ‘마’는 중간영역적인 특성을 가진 공간개념으로 일본 공간의 단위개념이면서 일본 전통공간의 하나의 존재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전통주거의 특성은 여러 논문과 서적을 통해 보다 자세히 기술되고 있다.²⁴⁾ <표 2>

<표 2> 일본 전통주거의 배치 및 평면구성의 특성

	특 성
배치 및 평면구성의 특성	비대칭, 명백한 축이 없음, 기러기 형(雁行)
	이중성, 회랑으로 둘러싸인 평면
	공사 공간의 분리, 접객공간의 발달
	융통성(전용성) 있는 공간배치, 시츠라이(室礼), 가변적 공간구획
	마(間)가 건축의 기본 구조
	다다미에 의한 공간의 모듈화
	수평 확장, 연속성, 개방성
	스키야(數寄屋)구조
공간 연계방식의 특성	시키리(仕切り)에 의한 연계
	중간영역, 공백영역, 경계영역의 존재
	울타리, 문, 쿠츠누기이시(沓脱石) 등의 경계
	결계(結界)
	개방성 연계성 연속성
	차경, 자연의 도입

위의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전통공간은 평면 구조가 간소하며 명쾌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규칙화된 모듈을 통해서 융통성이 높이는 ‘시키리(仕切り)’라는 가변적 공간 구획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수평으로 확장되는 공간구조를 가지며 외부와 내부와의 관계성을 중시하며 모호한 경계를 가진다, 공간은 무 장식적이며 재료의 미를 중시하였다. 공간 내부에는 ‘하레(ハレ)’ ‘케(ヶ)’ ‘오모테(表)’ ‘우치(内)’²⁵⁾ 등 인식적인 경계가 나타나며 주거공간임에도 접객공간의 중요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공간의 평면

배치상의 특성과 공간연계방식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이중성, 연속성, 융통성을 들 수 있다. 이중성은 엔가와(緣側) 등 내·외의 양의성과 다의성을 가진 공간특성이며, 연속성은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경험을 복합체로 다실(茶室)의 로지(露地)도 이에 속한다. 융통성은 고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방에 시키리 등을 이용한 변화를 부여하여 공간을 완전히 융합하고 확장해 흐르는 무한의 공간을 만든다. 이들은 모두 내외 공간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공간과 공간의 경계에 애매모호한 특성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이는 전절에서 정의한 ‘중간영역’의 개념과 부합되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

구로카와 키쇼(黒川 紀章)는 일본의 문화를 흑백을 쓰지 않는 애매한 ‘회색문화’ 라고 불렀다. 그는 전통공간에서 가장자리(緣)공간, 중간체, 회색 공간 등 ‘중간영역’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처마 밑 공간, 마루, 회랑, 격자 등 다양한 건축의 디테일로 표현되는 중간체라는 경계영역이 가지는 양의성, 다의성을 재발견하였다. 특히 ‘우츠(空)’의 개념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마(間)’의 개념을 포함하는 중간영역의 철학적 원점이라고 하며 공간의 상호 간의 극간이 생기는 경계영역의 문제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모호한 한계성, 상호침투, 상호역전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²⁶⁾

우치다 시게루(内田 繁)는 일본공간의 특징으로 ‘공백의 영역’인 우츠(空)로 표현한다. “일본의 공간은 반드시 나뉘고 나뉘에 의해 생겨난 둘러싸여진 ‘내(内)’와 배제되는 ‘외(外)’라는 두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공간 즉, 공백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내(内)와 외(外) 사이에 또 하나의 공간이 무연의 공간으로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않는 공간, 비(非)A 비(非)B의 공간으로 공간을 연결한다. 엔가와(緣側), 스키야(數寄屋)의 로지(露地)등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에 의해 문화가 깊게 확대된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중간영역을 통해서 일본인은 외부와 내부를 부드럽게 연결하거나 단절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⁷⁾

이토 테이지(伊藤 ていじ)는 일본의 공간적 특질을 회색의 공간이라고 하며 엔가와(緣側), 도마(土間) 등의 처마(庇) 밑 공간을 과정적(Transitional space), 연결적(Joint space) 공간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3차원적 공간 이외에도 겐카이(結界)²⁸⁾라고 하는 2차원적 중간영역의 중요성을 말하였다.²⁹⁾

나카가와 다케시(中川 武)는 일본의 공간은 연쇄성을 가진 ‘퍼져가는 빈 공간’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는 외부에서

日本, 2003, p.99
 23)미야카와 에이지(宮川 映二), 문석창 역, 建築的 空間, 기문당, 1982, pp.146~147
 24)일본의 경우, 자료조사의 제약으로 출판된 일본서적과 한국에서 발표된 일본 공간의 관련 논문과 서적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25)하레(ハレ)는 공식적인 비일상의 공간으로 남쪽에 위치하는 오모테(表)의 공간이며 케(ヶ)는 뒤 북쪽에 위치하는 사적인 일상공간을 의미하는 우치(内)의 공간이다.

26)구로카와 키쇼(黒川 紀章),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1986
 27)우치다 시게루(内田 繁, 沖健次), Interior Design, 六耀社, 日本, 2003
 28)원래는 불교용어로 넓게는 두 개의 다른 공간의 경계에 표식의 의미로 사용되며, 공간의 구획 시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나누면서 동시에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시키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두 공간사이의 애매모호한 영역으로 이토 테이지(伊藤 ていじ)는 이를 2차원적인 회색 공간(중간영역)이라고 하였다.
 29)이토 테이지(伊藤 ていじ), 日本 デザイン論, 鹿島出版會(日本), 1971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내외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치와 그 장소의 공기에 의해 공간이 끊임없이 유동하는 공간의 연쇄성에 의해 일본적인 독특한 특색을 띠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적인 경계공간을 도마(土間), 엔가와(緣側), 도비사시(土疵), 쿠즈누기이시(沓脱石)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 전통 주거공간에서 '중간영역'은 일본 공간의 기본 원리인 마를 비롯하여 하나의 건축원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이중성, 연속성, 융통성, 양의성, 다원성, 모호한 한계, 상호침투, 상호역전, 과정적, 연결적, 유동적, 연쇄적 등의 특질로 일본 전체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간영역'으로 주호 내부(住戶 内部)를 비롯하여 부분적으로 처마 밑 부분인 도마(土間), 엔가와(緣側) 스키야(敷寄屋)의 로지(露地) 등을 들 수 있다.

3.2. '중간영역'의 특성

(1) '중간영역'으로서 주호(住戶) 내부

일본 전통공간은 목조골격을 가진 개방적인 가구구조(架構構造)로 안과 밖의 구분이 애매한 반 내외 공간을 여러 단계로 구성, 후스마(襖)나 쇼지(障子) 등 가변적인 건구(建具)에 의해 공간분할 및 연결이 유동적인 변화에 의해 완성되는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일본 전통 공간사용법인 시츠라이(室礼)³¹⁾에 의해 공간을 전용(轉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내부 평면의 규정되지 않은 중성적, 무기적인 특징과 개방적인 형태는 일본 전통 건축공간 자체가 외부 환경(자연)에 대해서 혹은 내부 평면의 특성으로 '중간영역' 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전통주거의 내부공간은 가볍고 얇고 동적인 경계 장치에 의한 시키리(仕切り)³²⁾에 의해 구획되며, 이는 일본 주거가 '사생활이 없다'라는 특질을 갖게 한다. 이러한 독특한 공간구획은 인간의 조작을 통해 완전한 기능과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벽처럼 물리적으로 완벽히 행위나 대화를 차단할 수 없으나 암묵의 약속에 의해 확고한 경계의 의미를 지닌 인식적인 공간 분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절과 연속이 용이하게 변화하며 불확정적인 공간의 성격이 중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중간영역적인 애매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공간의 명칭은 약간의 기능을 나타내는 방의 명칭이 있기

는 하지만, 대부분 다다미의 크기를 나타내거나 비일상 일상에 관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동일한 장소가 때에 따라서는 접객장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모임의 장소, 잠자는 장소, 식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된 방의 행위에서 다음 행위로 옮길 때 주된 공간의 인접하는 장소로서 츠키노마(次の間)³³⁾이라는 것이 있어, 장소의 기능 전환을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³⁴⁾ 이와 더불어 연속적인 연결이 가능한 츠즈키마(續き間)³⁵⁾ 등도 예비공간으로써 규정되지 않은 중성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이다. 이처럼 내부평면 안에 각 실들은 시키리(仕切り)와 인식적인 경계에 의해 개방 또는 전용(轉用)이 가능한 하나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적인 방이 나타나지 않으며 규정되지 않은 방 등 불확정적인 중성적인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2) '중간영역'으로서의 도마(土間)

도마(土間)는 건물 내에 마루를 깔지 않고 외부 상태 그대로 두거나 타타키(三和土)를 깔아놓은 바닥의 상태를 말한다.³⁶⁾ 농경사회에서 이웃과의 공동생활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공적인 외부공간과 가족의 사적 공간의 중간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전통적인 주택에서 도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농촌의 주택에는 넓은 도마가 있어 농작업과 생활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이외 농촌의 주택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 도시주거의 상점 겸용주택인 마찌야(町家)에서도 건물의 입구부터 내부를 거쳐 뒤쪽 정원까지 통하는 긴 도마(土間)가 있어 이를 토오리니와(通庭)³⁷⁾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외부인이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이웃과 교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현관의 도마 뿐 만이 아니라 처마 밑이나 차양 밑에도 도마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일본주택의 내부에 이러한 장소가 반드시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안에서도 외부 대지의 연속성이나 기억과 연결되어 상징적인 기능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마의 존재는 주거공간에 있어 자연관, 공동적 인간관계,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 등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마는 내외(内外)와 공사(公私)라는 양의(兩義)적 경계 영역 속에 있는 공간이다.

(3) '중간영역'으로서 엔가와(緣側)

중간영역의 대표적인 표현양식인 엔가와(緣側)는 전통주택에서 방의 바깥쪽 둘레에 설치해 복도나 출입구로써 사용하는 좁

33)결방, 주된 방의 부속된 방으로 대기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34)이진민, 동양의 가구 한·일·중을 중심으로, 월간 인테리어 통권155호, 1998.8. p.115

35)연계방, 두개의 연속된 방으로 보통 미닫이문으로 칸을 나누며 두개의 방 중 하나는 격식 있는 방인 자시키(座敷)인 경우가 많다.

36)나카가와 타케시(中川 武), 日本の家, TOTO出版, 日本, 2002

37)토오리니와는(通庭) 통로처럼 사용되는 도마로 여기서 니와(庭)는 흙의 상태로 되어 있는 넓은 도마를 말하는 것으로 도마 대신 니와로 불린다. 鈴木 茂文, 이현희 역, 현대일본주거읽기, 국제출판사, 1999. p.34

30)나카가와 타케시(中川 武), 日本の家, TOTO出版, 日本, 2002

31)일본 독자적인 실내 공간구성법 또는 사고방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넓은 방에 필요에 따라 가구나 소품을 사용하며 사용이 끝나면 본래의 장소에 돌려놓는 일본적인 공간 사용 방법을 말한다.

32)공간 간의 상호관계나 공간 간의 경계형성의 장치를 의미하는 시키리(仕切り)는 병풍 등 단순한 칸막이를 비롯하여 미닫이식의 움직이는 벽인 후스마(襖)와 쇼지(障子), 그리고 격자형태의 안이 들여다보이는 코우시(格子), 비치는 천으로 된 스타래(簾) 등이 있다.

고 긴 마루바닥이다. 이것은 외기를 직접적으로 받는 의미에서는 외부이고 마루바닥과 지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내부이다. 이러한 내부 외부의 구분이 모호한 엔가와는 내외의 물리적인 완충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내부에 있는 사람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서 바라보는 자연이 근경에서 원경까지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심리적인 완충공간을 만들어 내는 장소이다. 또한 외부와 내부를 연결짓는 공간과 실(室)과 실(室) 사이의 통로의 역할로도 쓰이기도 하며 생활 속에서 이웃과 담소장소로도 사용되는 예비 공간으로 방을 넓게 사용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엔가와는 건축적으로 본다면, 중간적 공간(경계 영역)으로서 공간의 가장자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자리를 잘라낸 공간이 아니라 공간의 연속성을 한번 자름으로 인하여 다시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야(母屋)으로부터 밖으로 향해 만든 엔가와는 자연과 일체의 공간이기 때문이다.³⁸⁾

그 밖에 '중간영역'의 예로 카키네(垣根)³⁹⁾, 쿠츠누기이시(沓脫石)⁴⁰⁾, 도비사시(土庇)⁴¹⁾, 스키야(數寄屋)의 로지(露地) 등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스키야라고도 불리는 다실(茶室)은 다도(茶道)를 행하는 일상생활과는 떨어진 비밀상적인 독립된 공간으로, 여기에는 로지(露地)⁴²⁾라는 정원이 존재한다. 이는 일상과 비밀상이라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내적 정신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하는 중간영역적인 특성을 보여 준다. 즉, 다실이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이 아닌 자연과, 인간, 그리고 차와 관계를 갖는 연결적인 공간으로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성(聖)과 속(俗)의 세계와 그 정신적인 중간영역의 의미를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4. 사례 조사

4.1. 사례 선정 및 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 주거공간에 나타나는 '중간영역'을 매개체로서의 공간적 특성 측면과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 외부인과의 접촉 방식 등의 사회문화적 역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양국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의 보편적 특성과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중간영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주거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자국민족의 독자적 주거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문호 개방 이전의 주거를 선정하여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전통주거는 지역에 따라 주거의 평면형태·공간구성,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 전통주거에 나타나는 '중간영역'의 보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남, 호남, 기호지방의 주거를 1채씩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채와 간의 분화가 활발히 일어나 '중간영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중상류 이상의 주거를 선정하였다. 또한 문호 개방 이전의 주거를 선정함으로써 한국 전통주거에 나타나는 '중간영역'의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선정의 기준에 의하여 영남지방의 서백당, 호남지방의 김동수가옥, 기호지방의 김정식가옥 등 총 3채를 조사하였다.

일본의 전통주거는 각 계층별 주거의 형태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공간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간구성과 사회문화적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일본 전통주거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간영역'의 보편적 특성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하여 쇼인즈쿠리(書院造)형⁴³⁾, 마치야(町屋)형⁴⁴⁾, 그리고 농가(農家)형의 주거를 한 채씩 선정하였다. 시기적으로는 문호 개방 이전의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일본 전통주거의 고유한 공간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주거의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주거형태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주거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례선정의 기준에 의하여 쇼인즈쿠리형의 '家老 西郷頼母邸', 마치야형의 '今井町屋', 농가형의 吉村家住宅 등 총 3채를 선정하였다.

한국 전통주거는 공간적, 사회문화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안채와 사랑채의 마당과 대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주호 내부, 도마, 엔가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4.2. 사례 분석

(1) 한국의 전통주거

43)서원건축양식이라는 뜻으로 무로마찌(室町)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근세 초기에 확립된 지배계층의 주택 양식이다. 헤이안(平安)시대의 신덴즈쿠리(寢殿造)의 저택양식이 점차 변화 하여 형성된 의례적인 집객공간이 강조된 건축양식을 말한다.

44)도시상인의 주택인 마찌야는 상업공간인 점포와 주거공간이 함께 구성된 주상복합형 건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사정으로 인해 대부분 폭이 좁고 앞뒤로 긴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현대 일본 주택의 평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45)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3, pp.186-187

38)김은주, 우치다 시게루의 디자인개념과 실내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3권 4호, 2004, 8

39)집 주위나 정원을 둘러싸는 시키리(仕切り)로 보통 나무울타리나 대나무 울타리를 말한다.

40)현관이나 엔가와 등으로 오르는 입구에 신발을 벗어놓거나 오르고 내리기 쉽게 하기 위해 놓아 놓는 돌을 말하며 외부와 내부의 경계성을 연출하여 내외로의 이동을 위한 행동이 일어나는 장치적 요소로 양의적인 경계를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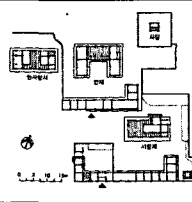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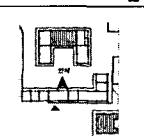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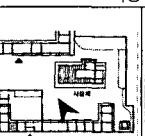

41)건물의 외측으로 뻗어 나와 도마부분을 덮는 차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외부로 확대되어 가는 내부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42)로지(露地)는 차실을 위한 접근로이며 로지의 입구는 속세에서 산사로 넘어가는 관문 같은 곳이다. 즉 일상과 예술을 연결짓는 역할을 하며 번잡하고 세속적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손님과 주인이 새로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비밀상적인 공간이다.

<표 3> 한국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 분석 I

사례 I. 영남지방의 '서백당'			
 <p>조선 초기(16c)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주거로 당시의 주거는 평면구성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⁵⁸ 이 주거의 경우에도 전체평면이 'ㄷ'자 형태를 이루고 있고 가운데 안마당이 있다. 출입구 반대쪽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며 그 측면 양쪽에 안방과 건넌방을 둔다. 사랑방과 대청은 출입구 측면 모서리에 위치한다.</p>			
안마당		사랑마당	
 <p>공간적 특성</p> <p>일반적인 사대부 주거의 안채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공간과 차단하는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며, 안마당 고유의 독립성과 중심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p>	 <p>사회문화적 역할</p> <p>안마당은 여성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집안과 외부인간의 차단적인 역할을 한다. 사랑채와 안마당을 공유하고 있으나 안마당을 통한 교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p>	 <p>공간적 특성</p> <p>행랑채, 사랑마당, 사당마당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전이가 나타나며, 기단, 레벨 차이, 마당 등의 다양한 건축적 요소로 인해 공간의 연속성, 원계성, 매개성 등의 다양한 공간적 특성이 보인다.</p>	 <p>사회문화적 역할</p> <p>사랑마당은 증가집의 중심공간인 사랑채와 연결되어 여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성 중심의 공간으로서 상징성과 권위를 지닌다.</p>
안대청		사랑대청	
 <p>공간적 특성</p> <p>안마당과 같은 폭으로 안대청의 폭이 이루어져 안마당의 공간감이 그대로 연속되며, 마당과 방의 매개적 역할을 한다. 한편 대청의 독립적 영역에 의해 각 방과 마당의 공간이 분리된다.</p>	 <p>사회문화적 역할</p> <p>중가 대청의 커다란 빈 공간은 의례공간으로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신과 인간이 교류하는 신성한 영역이다. 또한 안방과 건넌방을 분리함으로써 고부 관계의 완충적 역할을 한다.</p>	 <p>공간적 특성</p> <p>개방성을 지닌 공간으로 자연으로 공간이 확장하며, 원계성이 높은 공간으로 인식된다. 집안과 외부 공간(사랑마당·자연을 매개하는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p>	 <p>사회문화적 역할</p> <p>큰 사랑대청은 바깥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며 사회와의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반면에 작은 사랑대청은 안채와 사랑채를 이어주는 완충적 역할을 한다.</p>

<표 4> 한국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 분석 II

사례 II. 호남지방의 '김동수'가옥			
 <p>1784년에 건립되었으며, 호남 상류주택의 대표적인 분산형 배치를 했다. 대문채·행랑채·바깥사랑채·중문채·안사랑채·안채·사랑채의 7동으로 이루어졌다. 영역은 대문마당-바깥사랑마당-안마당-안사랑 마당의 4마당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특히 대문 마당은 별다른 기능이 없는 매개공간이며, 탁월한 공간구성이 돋보인다.</p>			
안마당		사랑마당	
 <p>공간적 특성</p>	 <p>사회문화적 역할</p>	 <p>공간적 특성</p>	 <p>사회문화적 역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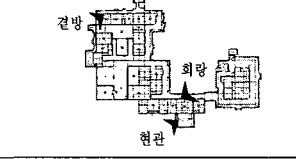
공간적 특성	사회문화적 역할	공간적 특성	사회문화적 역할
안마당은 ㄷ자형 안채와 一자형 행랑채로 둘러싸인 반개방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안마당은 안채와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의 사이에서 분리·완충적인 역할을 한다.	안마당은 여성의 공간으로서 가사직업의 중심영역으로 사용된다. 안마당은 전면의 행랑채와 서측의 내외 사랑채의 사이에서 분리·완충적인 역할을 한다.	대문마당을 거쳐 바깥사랑마당으로 진입하게 된다. 사랑마당은 주거 내 각 영역의 매개적 역할을 하며, 연속된 공간의 흐름을 가진다.	사랑마당은 사랑채와 행랑채로 둘러싸인 매우 커다란 남성 중심의 공간을 형성하며, 주로 남자 하인들의 작업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안대청		사랑대청	
 <p>공간적 특성</p> <p>매우 정형화된 안정된 공간을 형성하며, 분합문을 설치하여 반개방적인 안마당에 비해 물리적으로 다소 폐쇄적인 경향을 띤다.</p>	 <p>사회문화적 역할</p> <p>여성 중심의 공간으로 전면이 분합문을 달아 필요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반개방적인 안채 영역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공간적 특성</p> <p>전후퇴(前後退)를 지닌 겹집으로 후기적 성향을 지니며 매우 개방적인 구성을 한다. 분합문을 개방하면 넓은 안마당과 연속된 공간을 형성한다.</p>	 <p>사회문화적 역할</p> <p>사랑채는 바깥사랑채는 문종의 어른이 거주하는 곳으로 남성의 영역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사회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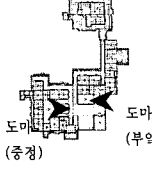

<표 5> 한국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 분석 III

사례 III. 기호지방의 '김정식'가옥			
 <p>약 200년 전에 건립된 경기 지역의 전형적인 부농주거로서 'ㄱ'자형의 안채를 중심으로 뜰·마당 형태를 이룬다. 사랑채 앞의 바깥마당과 안채 뒤의 뒷마당은 중부지역의 전통주거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전자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며, 후자는 여성의 공간이다. 일반적인 전통주거의 안마당이 안채의 고유영역으로서 사랑채와 완충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 차단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 주거에서는 안마당이 가족 중심의 공간으로 개방적이며 외부에도 어느 정도 개방된 구성이다.</p>			
안마당		사랑(바깥)마당	
 <p>공간적 특성</p> <p>ㄱ자형의 안채와 사랑채가 ㄷ자형의 반개방적인 안마당을 형성한다. 안마당은 폐쇄적이지 않고 안채와 사랑채 양 방향에서 공간의 통합을 이룬다.</p>	 <p>사회문화적 역할</p> <p>이 주택의 안마당은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이다. 가족이 모이는 장소이면서 외부인에게 어느 정도 개방되는 구성이며 이로 인해 여성의 공간은 뒷마당에 형성된다.</p>	 <p>공간적 특성</p> <p>중부지역의 바깥마당은 주거와 마을 사이의 보이지 않는 중간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주거와 마을 사이의 매개적, 완충적 특성을 지닌다.</p>	 <p>사회문화적 역할</p> <p>사랑마당은 주거의 외부영역이면서 심리적으로는 사랑채 주인의 통제를 받는 반 사회적(半社會的)인 공간으로서 사회와 주거 사이의 완충적 역할을 담당한다.</p>
안대청		사랑대청	
 <p>공간적 특성</p> <p>이 주택의 안대청은 안방과 건넌방을 분리하여 고부관계의 완충적 역할을 하며, 여성 중심의 공간이면서 가족중심의 공간인 안마당에 다소 개방적이다</p>	 <p>사회문화적 역할</p> <p>이 주택의 안대청은 안방과 건넌방을 분리하여 고부관계의 완충적 역할을 하며, 여성 중심의 공간이면서 가족중심의 공간인 안마당에 다소 개방적이다</p>	 <p>공간적 특성</p> <p>큰 사랑대청과 작은 사랑대청은 바깥마당과 내부 안마당을 직접 연결하여 집안과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적 특성을 지닌다.</p>	 <p>사회문화적 역할</p> <p>일반적으로 사랑대청은 남성의 공간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사회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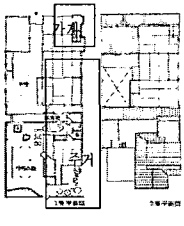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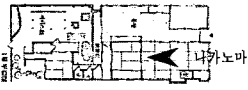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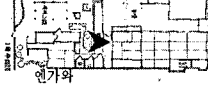
(2) 일본의 전통주거

<표 6> 일본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 분석 I



사례 I. 쇼인즈쿠리(書院造)형의 家老 西郷頼母邸			
		<p>접객 공간이 강조된 쇼인즈쿠리(書院造)양식으로 예도시대 중기에 지어진 상류무사주택이다. 일상생활에는 사용되지 않는 접객을 위한 하레(ハレ)-오모테(表)의 공간과 주거를 위한 케(ケ)-우치(内)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p> <p>또한 현관 역시 격식에 대응한 사용을 전제로 하여 여러 개의 현관이 마련되어 있다.</p>	
주호(住戶) 내부			
			
공간적 특성	사회문화적 역할		
<p>현관과 회랑인 엔가와를 중심으로 접객부분과 주거부분이 나뉘어져 있다. 회랑은 두 공간을 분리 또는 연결(매개)하며, 공간의 완계성을 만든다. 주요한 방 옆에는 결방, 연계방 등 또 하나의 실이 존재해 통과의 기능과 함께 예비공간으로써 유통성 있는 공간사용을 유도한다. 또한 내부공간 전체는 가변적인 구획으로써 의해 하나의 공간으로 연속하는 개방성을 가진다. 입구의 현관과 현관방은 내외부의 중간영역으로써 통과공간을 단계적으로 형성하는 전이적 공간이다.</p>	<p>접객공간은 집이라는 내부 공간 안에서 외부사회와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넓지 중심의 격식공간을 형성하였다. 또한 내부의 방들은 개인적인 방은 없고 그때마다 용도가 결정되거나 방의 기능 이외에 통로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의 영역이 규정되지 않은 중성적인(무기적인)공간을 만들어 접객공간과 주생활공간을 완충하고 있다. 또한 내부는 심리적 차단만으로 이루어져 공간구획을 형성한다. 외부와 내부와의 관문인 현관은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부각되어 무사로의 권위를 상징한다.</p>		
엔가와	도마		

사례 III. 농가형의 吉村家住宅			
			
공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공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p>내부평면을 감싸는 형태로 개방된 구조로 내외부가 서로 연속, 확장된다. 또한 각각의 공간을 연결 통과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한편 접객, 주거, 서비스 공간 등의 각 공간을 분리,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p>	<p>방에서 수평으로 연장, 확장된 공간을 만들어 내부의 위치에 따라 외부의 경관이 달라지는 심리적 완충작용이 이루어진다. 또한 외부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p>	<p>집안밖에 정원은 내외부를 연결하여 자연과 교류하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외부(자연)요소는 내부공간과 통합되고 공간을 상호 분리의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내부 도마에는 부엌 등이 위치해 옥외와 연속한 옥내공간을 만든다.</p>	<p>도마공간은 공동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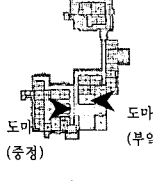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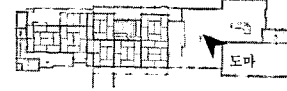

<표 7> 일본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 분석 II

사례 II. 마찌야형(町屋)의 今井町屋			
	<p>상가와 주거가 함께 있는 일본의 도시 서민주택의 대표적인 형태인 마찌야형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사정으로 인해 대부분 전연의 폭이 좁고 앞뒤로 긴 모양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에 면한 건물 앞부분은 점포로 그 뒤쪽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 긴 부지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외부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는 토오리나와(通廊)가 있고 중간에 부엌, 뒷부분에는 우라니와(裏庭)로 이웃집과 연결되어 있다.</p>		
주호(住戶) 내부		엔가와	
			

공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공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p>길 앞으로부터 점포, 나가노마(중간방),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진 공간구성으로 각 공간이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내부로 들어갈수록 주거 또는 접객 공간으로 전이되며 매개적 역할을 한다. 또한 점포와 주거공간사이의 나가노마는 공간의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p>	<p>상점과 주거의 중간영역이며 대외적인 거실의 성격을 가진 공간이 접객공간과 일상생활의 완충 공간으로 존재, 외부의 공적인 공간과 주거의 사적 공간 사이의 중간영역으로 존재한다.</p>	<p>접객을 위한 자시카(座敷)공간과 토오리나와와 연결된 부분에 설치하여 내부와 외부의 매개 요소로 작용해 개방적이며 반내부 반외부적인 불확정한 공간을 만든다.</p>	<p>이웃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의 역할을 한다.</p>

도마(토오리나와(通廊) 초보니와(坪庭) 우라니와(後庭))	
	
공간적 특성	사회문화적 역할
<p>입구부터 안쪽까지 연결된 개방적인 도마부분을 토오리나와라고 부르며 상점부터 주거공간을 연결(매개)시키며 전이된다. 외부와의 연계를 획득하며 채광 통풍 등 외부자연요소를 내부로 도입 내외부가 통합한다. 중간부분에는 초보니와(坪庭)라고 불리는 관상용 정원을 두어 긴 내부공간을 분리하거나 내부화된 외부공간을 만든다. 안쪽에 있는 우라니와는 서비스 공간으로 작업장으로 사용되거나 관상용 공간으로 집안 내부에서 외부 자연요소를 느낄 수 있는 반내부 반외부적인 애매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공간을 만든다.</p>	<p>토오리나와는 외부인도 쉽게 진입할 수 있어 공적인 장소로 이웃과의 교류가 뿐만 아니라 자연요소와의 교류가 만들어 지는 공간이다. 초보니와(坪庭) 등 관상용 정원의 경우는 외부(길)에 대한 내부의 별세계로 비일상적인 공간(정신적인 세계)을 만들어낸다.</p>

<표 8> 일본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 분석 III

사례 III. 농가형의 吉村家住宅			
			
공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공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p>내부평면을 감싸는 형태로 개방된 구조로 내외부가 서로 연속, 확장된다. 또한 각각의 공간을 연결 통과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한편 접객, 주거, 서비스 공간 등의 각 공간을 분리,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p>	<p>방에서 수평으로 연장, 확장된 공간을 만들어 내부의 위치에 따라 외부의 경관이 달라지는 심리적 완충작용이 이루어진다. 또한 외부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p>	<p>집안밖에 정원은 내외부를 연결하여 자연과 교류하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외부(자연)요소는 내부공간과 통합되고 공간을 상호 분리의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내부 도마에는 부엌 등이 위치해 옥외와 연속한 옥내공간을 만든다.</p>	<p>도마공간은 공동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p>
공간적 특성	사회문화적 역할	공간적 특성	사회문화적 역할
<p>내부는 움직이는 벽인 후스마에 의해 방이 하나의 시각적인 차단만으로 공간이 형성되는 의식구조로 인해 내부 전체가 실리적인 차단공간으로 작용한다. 접객공간과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완충적인 공간이 존재하며 규정되기 어려운 중성적인 성격이 강하다.</p>	<p>암묵적인 약속에 의해 시각적인 차단만으로 공간이 형성되는 의식구조로 인해 내부 전체가 실리적인 차단공간으로 작용한다. 접객공간과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완충적인 공간이 존재하며 규정되기 어려운 중성적인 성격이 강하다.</p>	<p>내부를 감싸는 형태로 문의 개폐에 따라 내외가 서로 연속되도록 하며 공간과 자연 사이를 매개한다. 또한 각각의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복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p>	<p>내부와 외부의 연계성에 있는 엔가와는 건축공간과 외부(자연)와의 심리적 완충공간이며 외부인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p>
도마		엔가와	
			
공간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p>하나의 지붕 안에 존재하는 흙(土)으로 된 내부공간으로 외부(자연)적인 요소를 내부로 끌어들이며 내부와 외부의 공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개를 통해 내부와 외부의 의식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사람과 물건의 출입통로로서 내외부의 매개적인 역할도 한다.</p>	<p>단 차이를 두고 연결된 마루와 함께 이웃사람과 교류하는 장소로 사용되며, 부엌이 있어 요리와 농작업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다목적 작업공간이다</p>		

(3) 종합분석

<표 9> 한국 전통주거 '중간영역'의 공간적 특성

	조사대상 가옥	'중간영역'의 공간적 특성	
한국 전통주거	안마당	I. 서백당	폐쇄 독립 중심
		II. 김동수가옥	반개방 분리·완충
		III. 김정식가옥	반개방 통합
	사랑마당	I. 서백당	전이 연속 위계 매개
		II. 김동수가옥	매개 연속
		III. 김정식가옥	매개 완충
	안대청	I. 서백당	매개 독립
		II. 김동수가옥	폐쇄
		III. 김정식가옥	매개 완충
사랑대청	I. 서백당	개방 위계 매개	
	II. 김동수가옥	개방 연속	
	III. 김정식가옥	매개	

<표 10> 일본 전통주거 '중간영역'의 공간적 특성

	조사대상 가옥	'중간영역'의 공간적 특성	
일본 전통주거	住戶内部	I. 家老 西郷頼母邸	연결(매개) 연속 통과 개방 전이 융통 위계
		II. 今井町屋	연결(매개) 완충
		III. 吉村家住宅	연결(매개) 연속 개방 불확정성
	엔가와	I. 家老 西郷頼母邸	연결(매개) 통과 확장 완충 연속
		II. 今井町屋	연결(매개) 개방 불확정성
		III. 吉村家住宅	연결(매개) 연속
	도마	I. 家老 西郷頼母邸	연속 진입 내외부의 통합
		II. 今井町屋	연결(매개) 분리 전이 내외부의 통합(내부화된 외부) 불확정성
		III. 吉村家住宅	연결(매개)

<표 11> 한국 전통주거 '중간영역'의 사회문화적 역할

	조사대상 가옥	'중간영역'의 사회문화적 역할	
한국 전통주거	안마당	I. 서백당	여성의 공간 집안과 외부인 간의 차단역할
		II. 김동수가옥	여성의 공간 가사작업의 중심 공간 내외(남녀)를 분리하는 역할
		III. 김정식가옥	가족생활의 중심 공간
	사랑마당	I. 서백당	남성중심의 공간(권위성, 상징성)
		II. 김동수가옥	남성중심의 공간(권위성, 상징성) 남자하인들의 작업 공간
		III. 김정식가옥	남자하인들의 작업 공간 사회와 주거사이의 완충 역할 반사회적(半社會的) 공간
	안대청	I. 서백당	신과 인간이 교류하는 영역 고부관계의 완충영역
		II. 김동수가옥	여성 중심의 공간 고부관계의 완충영역
		III. 김정식가옥	여성 중심의 공간 고부관계의 완충영역
사랑대청	I. 서백당	남성 중심의 공간(권위성, 상징성) 사회와의 교류 안채와 사랑채의 완충 (서백당, 작은사랑대청)	
	II. 김동수가옥	남성 중심의 공간(권위성, 상징성) 사회와의 교류	
	III. 김정식가옥	남성 중심의 공간(권위성, 상징성) 사회와의 교류	

<표 12> 일본 전통주거 '중간영역'의 사회문화적 역할

	조사대상 가옥	'중간영역'의 사회문화적 역할	
일본 전통주거	住戶内部	I. 家老 西郷頼母邸	외부사회와의 교류 영역 비밀공간의 부재 중심적(무기적)공간 비일상과 일상(접객과 주거)공간의 완충 심리적 차단 권위의 상징
		II. 今井町屋	외부사회와의 교류영역 비일상과 일상(접객과 주거)공간의 완충
		III. 吉村家住宅	심리적 차단 비일상과 일상(접객과 주거)공간의 완충 공간 중심적(무기적) 공간
	엔가와	I. 家老 西郷頼母邸	심리적인 완충 외부인과의 교류
		II. 今井町屋	외부인과의 교류
		III. 吉村家住宅	심리적인 완충 외부인과의 교류
	도마	I. 家老 西郷頼母邸	공동 작업 공간
		II. 今井町屋	외부인과의 교류 비일상적 공간
		III. 吉村家住宅	공동 작업 공간 외부인과의 교류

<표 13> 한·일 전통주거 '중간영역'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역할

	'중간영역'의 공간적 특성	'중간영역'의 사회문화적 역할
한국 전통 주거	폐쇄 / 반개방 / 개방 / 독립 / 중심 / 분리·완충 / 완충 / 통합 / 전이 / 연속 / 위계 / 매개	-남성중심의 공간(권위성, 상징성) -여성중심의 공간(독립성, 사생활)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 보호 역할 -가족중심의 공간 -내외(남녀)를 분리, 완충 역할 -사회와 교류 영역 -사회와 주거 사이의 차단·완충 역할 -남, 녀 하인의 분리된 작업 공간 -안채, 사랑채의 완충 -신과 인간의 교류
일본 전통 주거	연결(매개) / 연속 / 통과 / 분리 / 개방 / 전이 / 불확정성 / 융통 / 위계 / 확장 / 완충 / 진입 / 내, 외부의 통합(외부요소도입, 내부화된 외부)	-외부사회와의 교류 -사적 공간의 부재 -중심적(무기적) 공간 -비일상과 일상(격식 공간과 주거)의 완충 공간 -권위의 상징 -심리적 차단, 완충 -공동 작업 공간 (남녀의 구분 희박함) -비일상적인 공간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 주거공간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하여 양국의 전통 주거공간에 나타나는 '중간영역'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일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의 공간적 특성

한국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인 안마당, 사랑마당, 안대청, 사랑대청은 폐쇄, 반개방, 개방, 독립, 중심, 분리·완충, 완충, 통합, 전이, 연속, 위계, 매개적인 공간적 특성을 지니며,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더라도 주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표 9>

일본의 '중간영역'과 비교해 볼 때, 폐쇄, 독립, 중심적인 특성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채와 간의 분화에 의해 생성된 '중간영역'이 폐쇄적인 벽에 의해 독립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벽의 고정성에 의한 공간의

전용성이 나타난다.

일본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인 주호 내부, 도마, 엔가와
는 연결(매개), 통과, 확장, 완충, 연속, 전이, 융통, 위계, 내외
부의 통합, 불확정적인 공간적 특성을 지니며, 이는 저마다 다
른 주거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한국의 '중간영역'과 비교하여 불확정성, 융통성, 외부요소의
도입 등의 특성이 다소 분명하게 나타난다. 간의 분화로 이루
어진 일체화된 중간영역은 개방적, 연속적인 경향을 가지며, 벽
의 가변성은 공간의 유연성과 함께 애매모호한 공간을 형성하
게 하는 특성을 갖게 한다. 또한 외부요소의 적극적인 도입 등
으로 내외부가 모호한 공간적 특성을 나타낸다.

(2) 한·일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의 사회문화적 역할

한국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인 안마당, 사랑마당, 안대
청, 사랑대청은 남성중심의 공간(권위성, 상징성), 여성중심의
공간(독립성, 사생활보호),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족중
심의 공간, 내외(남녀)를 분리·완충, 사회와의 교류, 사회와 주
거 사이의 차단·완충, 남, 녀 하인의 분리된 작업 공간, 안채,
사랑채의 완충, 신과 인간의 교류 등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한국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역
할의 가장 큰 특성은 가족구성원, 남성과 여성, 집안과 외부공
간의 사생활을 완화시키는 완충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 혹은 여성중심의 고유한 영역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며,
가족 중심의 공간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대청, 사랑마당 등
의 고유한 영역성에 의해 인간과 신의 공간이 분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인 주호 내부, 도마, 엔가와
는 외부사회와의 교류 공간, 비밀상과 일상(접객과 주거)의 완
충역할, 심리적 차단, 중성적 공간형성과 남녀의 구분 회박, 사
적 공간의 부재, 권위의 상징, 공동 작업 공간, 비밀상적인 공
간 등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일본의 전통 주거공간의 '중간영역'에는 프라이버시가 배제
되어 있어 사적 혹은 가족 중 특정인을 위한 공간형성은 나타
나지 않는다. 그 대신 외부인을 위한 대사회적인 공간이 사적
인 주거공간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인과 거주인 사이의 완
충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예비공간의
활용과 시키리 등에 의한 심리적인 공간분할이 이루어진다. 특
히 도마는 내부화된 외부로 일상적인 공간 안에 정신적인 관념
의 비밀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한국과 일본의 전통 주
거공간에 나타나는 '중간영역'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역
할의 특성은 각 국의 '중간영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양국 고유의 건축공간에 내재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 시대의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공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란기, 마루의 공간적 의미, 건축과 환경, 1987.1
2.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98
3. 윤장섭, 일본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4.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5.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3
6. 渡辺 保忠, 加藤角一, 建築講座5 歴史, 彰國社, 日本, 1962
7. 井上 充夫, 日本建築의 空間, 鹿島出版會, 日本, 1971
8. 伊藤 ていじ, 日本 デザイン論, 鹿島出版會(日本), 1971
9. 西山 卯三, 住居論, 勁草書房, 日本, 1977
10. 山本 祐弘, 日本建築史, 彰國社, 日本, 1978
11. 扇田信 外9人, 新建築學大系 住居論, 大光書林編輯部譯, 大光書林, 1991
12. 日本住文化研究會, 住まいの文化, 學藝出版社(日本), 1999
13. 中川 武, 日本の家, TOTO出版, 日本, 2002
14. 磯崎 新, 建築における 日本的なもの, 新潮社(日本), 2003
15. 内田 繁, 沖健次, Interior Design, 六耀社, 日本, 2003
16. 宮川 映二, 문석창 역, 建築的 空間, 기문당, 1982
17. 黒川 紀章, 편집부 역, 길과 건축, 태림문화사, 1986
18.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주거형태와 문화, 이규복
譯, 열화당, 1987.
19. 鈴木 茂文, 이현희 역, 현대일본주거읽기, 국제출판사, 1999.
20. 保坂 陽一, 경계의 형태 그 건축적 구조, 이진민 역, 한국산업훈련연구
소, 1999
21. 김미나, 조선시대 주거공간의 경계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론,
1997
22. 김연정, 동서양 전통적인 주택 양식의 실내공간 특성 비교분석 연구,
연대 석론, 1999.
23. 송성은, 韓國と日本における近代初期都市の住宅研究, 大阪藝術大學大學
院 博士 論文, 2001
24. 윤현정, 한국 전통 주거공간에 있어서 경계공간의 개념 및 특성, 세종
대 석론 2002.
25. 윤장섭, 한국과 일본의 민가건축 비교 고찰, 대한건축학회 23권 68호,
1979, 6
26. 이배화, 한국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구성의 유형학적 분석,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1998.2
27. 이배화, 대립·역동·조화의 이론과 한국전통 건축에 있어서 공간 구
성의 실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4
28. 김중현·주남철,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2호, 1996.2 219 노동성, 홍대형,
관가정의 건축공간 구성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12호, 1999.12
29. 이진길, 한국전통건축의 사이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계획계 17권 1호, 2001.1
30. 차명렬, 상류주택 누마루의 권위성과 상징성, 건축과 환경, 1987.1
31. 이진민, 동양의 가구 한·일·중을 중심으로, 월간인테리어 통권155호,
1998, 8

<접수 : 2005. 2. 28>